



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육계)

[온라인]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	--	--	--	--	--	--	--	--

성 명 ()

<유의사항>

1. 답안지에 제목은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3.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4. 답안지에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5. 인문·체육계 문제지는 총 4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1998년 지구 온난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적 집단 연구를 실시한 미국지구물리학회 연구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표적 집단에 속하는 많은 응답자들이 환경 문제(오염과 유독성 폐기물 등)를 야기한 주원인이 맹렬한 이기주의와 탐욕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에 있다고 진단한다. 이들은 이런 도덕적 타락을 역전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환경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응답자들의 인식이 정확하다는 것은 술하게 진행된 심리학 및 사회학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들은 변창하는 자본주의와 긴밀한 연관을 지닌 가치관의 우세와 반환경주의적인 관점과 행동 사이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정치적 보수주의와 권위주의적 관점, 산업 친화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일수록 기후 변화를 부인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수많은 연구들이 확인했으며, 물질 만능주의(또한 자유 시장주의 이데올로기) 가치관이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요컨대, 기업의 시대에 우위를 점한 오늘날의 문화는 인류를 자연계에 맞서게 만든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사회 운동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지배적인 가치관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삶의 다른 방식을 제공하고, 문화적 세계관을 놓고 벌이는 결전에서 승리를 일궈 나가기 위해서다. 또한 대다수 지구인들이 공감하는 세계관, ‘인간은 자연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임을 드러내는 세계관, 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집단행동은 사악한 것이 아니며 상호 협동을 통한 공동 대응은 인간이 이룩한 최고의 성과임을 증명하는 세계관, 탐욕은 원칙과 사례를 통해서 길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계관, 풍요 속의 빈곤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는 세계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사회 운동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자본주의적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들을 표방해 온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들을 방어한다. 도서관과 공원을 지키는 운동, 대학 무상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 운동, 존엄성 보장과 국경 개방을 요구하는 이민자 권리 운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 운동은 공통점이 전혀 없는 듯 보이는 투쟁들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려는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컨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 전에 먼저 연금과 식료품 보조금과 건강 보험을 삭감하자는 논리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먼저 땅속에 묻힌 석유와 가스를 남김없이 채취하자는 논리가 결국은 동일한 맥락임을 확증해 냈다.

[나]

나에게 좀 더 확실한 대안이 있긴 하다. 그것은 식물에게 다시 맡기는 것이다. 식물은 이미 과거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대폭 줄여 동물들이 지구를 정복하게 해주었다. 식물은 다시 그렇게 하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식물이 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지구에 식물을 가득 채워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숲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의 증가 추세를 꺾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 삼림 벌채는 반인륜적 범죄로 취급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한다. 이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삼림의 무형 자원과 그것을 유지해 주는 생명체, 토양, 공기 그리고 물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는 우리 식물 국가의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생존 기회가 식물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에서는 성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영화 감독은 이것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고 작가는 책을 써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삼림 보호 동원 소집을 받았는데도 환경과 숲을 보호하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할 진짜 이유를 모르겠다면, 이것이야말로 실재하는 유일한 세계적 비상사태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 중 상당수는 비록 관련성이 희박해 보일지라도 결국 환경적

<뒷면에 계속>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이 문제를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식물은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들만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무해한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 우리 도시들은 세계 인구의 50 퍼센트가 사는 곳이면서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다. 도시들을 식물들로 완전히 뒤덮어야 한다. 지정된 공간뿐만 아니라 공원, 정원, 거리, 화단 등 어디에나 말이다. 이를테면 지붕 위, 건물 정면, 길가, 테라스, 발코니, 굴뚝, 신호등, 가드레일 등에도 식물이 자라게 해야 한다. 간단한 한 가지 원칙만 세우면 된다. 식물이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식물을 하나씩 두어야 한다. 거기에 드는 비용도 소소한 데다 우리 습관에 어떤 혁명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무수한 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온을 대폭 상승시킬 정도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견해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구 대기의 온도변화는 주로 태양 활동의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지구는 그 양적 변화에 대응하여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피드백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가 온난화하면, 바닷물 증발이 증가하고, 그것에 의해 비의 양이 증가하여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제거합니다. 또 증가한 구름에 의해 태양광으로부터의 열을 막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초월하여 온난화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활동 탓이 아니라 태양의 활동 등 자연현상이 원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온난화의 원인이 오로지 인간의 활동에 있다는 것은 일견 겉혀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인간의 능력을 과대시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인간은 각 지역의 환경을 파괴할 능력이 있고, 그것을 멈추고 회복시킬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의 환경을 바꿀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세계사에서 위기적 상황을 가져온 것은 온난화가 아니라 항상 자연 원인에 의한 한랭화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한랭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중시하는 지구적 경제와 환경을 확보해야 하는데, 온난화설과 더불어 그런 시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난화설은 각 나라, 각 지역의 질적인 차이를 무시합니다. 엔트로피는 다양한 폐기물을 추상화한 양으로서 나타내는 것이지만, 언제든지 그것을 폐기물의 다양한 형태로 되돌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및 그 원인을 이산화탄소로 보는 이론은 그와 같은 다양성을 무시합니다. 각지의 인간 활동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표시됩니다. 그것은 각국의 생활을 GDP와 인구만으로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온난화설에 기초한 환경론은 지역적 에코시스템에 입각하는 환경론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지역에 근거한 환경운동을 파괴하고 맙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생각을 하는 환경론은 각국, 각 지역의 다양한 조건이나 상태를 무시하는 신자유주의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농산물의 자유화 등에 의해 농업을 기초로 한 각지의 에코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자 그에 근거한 환경운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편 온난화는 지구 규모의 현상이자 지역 환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온난화설에서 환경론의 글로벌리제이션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글로벌리제이션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에 의해 환경운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온난화설 이후 환경론자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작업을 인류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메리카의 환경 활동가 중에는 원전을 긍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삭감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타입의 환경론자는 자연환경의 문제를 그저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만 보고 있지, 그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지 않습니다.

[라]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 면에 계속>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마]

모든 종은 어느 정도 경쟁을 경험한다. 식물의 세계에서 경쟁은 주로 공간과 빛의 문제이다. 식물은 뿌리를 뻗어 양분과 물을 흡수할 지하 공간이 필요하다. 토양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된다. 한 식물의 뿌리가 조밀할수록 다른 뿌리가 비좁고 들어올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작물을 심을 때 간격을 두고서 심도록 권장하는 이유도 그 래서이다. 또한 식물은 잎을 펼칠 지상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한 식물의 잎과 가지가 다른 식물과 서로 겹쳐 있으면, 둘 중 큰 것은 햇빛을 더 많이 받고 작은 것은 서서히 굵게 된다. 조용한 숲을 이런 맥락에서 그려 보면 재밌다. 혼잡한 버스에 탄 사람들처럼 식물은 필요한 공간을 얻기 위해 싸운다. 다만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다.

식물이 이웃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남보다 크게 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크기의 식물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만, 왜 종과 종 사이에 그렇게 많은 변이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다. 꽃다지속의 드라바 베르나(Draba verna)처럼 땅에서 고작 1~2밀리미터 올라온 게 다인 초소형 식물이 있는가 하면, 하늘로 110미터까지 치솟은 세쿼이아나무 같은 골 리앗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모두 경쟁 때문이다. 진화의 관점에서 다른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식물이 물을 떠나 물을 뒤덮기 시작했을 때, 어떤 식물은 다른 식물보다 더 크게 자랐다. 사실 식물이 몸을 키우는 것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더 취약해지는 일이다. 튼튼한 세포조직을 생산하는 데 투자하는 비용은 지면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식물보다 키를 높이 키워야 하는 식물이 더 클 것이다. 또한 키가 큰 식물은 보통 강한 바람이나 벼락의 희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뭄에도 타격을 입기 더 쉽다. 식물의 키가 클수록 중력을 거슬러 물이 위로 이동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웃 식물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며, 동시에 바람이나 곤충 같은 수 분 매개체의 접근도 더 유리하다는 말이다. 그만큼 포자나 종자 확산의 기회도 크다. 일단 경주를 시작한 이상 멈출 수가 없다. 멀대처럼 키가 큰 풀이 무성한 들판을 지나거나 높이 솟은 나무가 뻗뻗한 숲을 걸을 때, 우리는 수백만 년간 지속된 진화 적 군비 경쟁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는 셈이다. 3억 8,500만 년 전 대본기 이후로 이 싸움은 멈춘 적이 없다.

[바]

유명한 일본 노래 중에 “넘버원이 되지 않아도 돼, 원래 특별한 온라인이니까. 그러면 됐어.”라는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다. 이 가사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가사에서 말하듯 온라인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전부 는 아니며, 넘버원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각자는 특별한 개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온라인이면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해석도 있다. 세상은 경쟁 사회다. 온라인이면 된다는 달콤한 말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역시 넘버원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이면 될까, 아니면 넘버원을 목표로 해야 할까?

넘버원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이 자연의 철학이다. 앞에서 짚신벌레를 이용한 실험을 소개했다. 하나의 수조에 넣 은 두 종류의 짚신벌레는 어느 한쪽이 사라질 때까지 서로 경쟁하고 싸운다. 승자가 살아남고 패자는 멸종하는 것이다. 넘버원 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이 자연계의 혹독한 규칙이다. 인간 세계라면 넘버투는 은메달을 받고 청송을 받는다. 하지만 자연계에서 넘버투는 존재하지 않는다. 넘버투는 곧 멸종될 패자일 뿐이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다. 넘버원이 아니면 살아남 을 수 없다면 지구는 단지 1종의 생물만 생존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연계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넘버원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자연계에서 어떻게 해서 많은 생물이 공존하고 있는 걸까?

짚신벌레의 또 다른 실험에서는 두 종류의 짚신벌레가 공존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은 한 종의 짚신벌레가 수조 위에서 살 면서 대장균을 먹이로 삼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종의 짚신벌레는 수조 바닥에 있으면서 효모균을 먹이로 삼고 있었다. 즉 하나 는 수조 위에서 넘버원이고, 다른 하나는 수조 바닥에서 넘버원인 것이다. 이처럼 넘버원, 즉 1위를 나눠 가질 수 있다면 공존 이 가능하다.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니치(niche)라고 한다. 니치는 그 생물만 존재하는 온라인인 장소다. 즉 모든 생물은 온라인이며, 동시에 넘버원이다. 지구 어딘가에 니치를 찾을 수 있었던 생물은 살아남았고, 니치를 찾을 수 없었던 생물은 멸 종했다. 자연계는 니치를 둘러싼 싸움이다.

* 니치(niche): 어떤 생물이 서식하는 범위의 환경. 생태적 지위.

[사]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 내 생각에 가장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는 국내에서의 자유경쟁, 그리고 세계에서의 자유 무역이다. 최상의 보호자는 어느 곳에서나 자유경쟁이 가능한 자유시장, 사적 자유시장이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가장 큰 위 험은 개인 혹은 공공의 독점이다. 경쟁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가 정부 관료보다 융통성이 많거나 이타적이거나 관 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기업가의 신념과도 같은 이기심 때문이다. 식품안전처

<뒷면에 계속>

(FDA)라는 기구가 없다면 어떨까? 누가 기업이 불량품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막을까? 기업이 시장에 불량품을 유통시키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양질의 수프를 50년 동안 많은 이윤을 남기며 생산, 판매해 온 뉴저지의 한 회사의 사례를 기억할 것이다. 50년 동안 분명히 착실한 운영을 해왔지만, 변질되고 오염된 단 한 개의 수프 깡통이 나온 사건이 발생하자 이 회사는 곧바로 도산하였다. 불량품을 유통시키는 것은 자유시장에서 결코 현명한 영업 방법이 될 수 없다.

주간통상위원회(ICC)의 예를 들어보자. 철도 경영자 자신들은 요금을 협정하는 카르텔을 형성하려고 노력했으나 요금 협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협정을 어기고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은 다시 경쟁적이 되곤 했다. 그래서 ICC가 만들어졌고, 그 것으로 인해 제일 먼저 나타난 효과는 철도의 높은 요금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된 것과 경쟁을 제거한 것이었다. ICC는 독점인 철도가 소비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요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카르텔을 만들어 냈다. 그때 트럭운송이 들어와서 철도와 경쟁하게 되었다. 트럭운송을 정부 규제 하에 두어야 할 독점산업이라는 주장은 없었다. 왜냐하면 트럭운송업에는 많은 경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비양심적인 트럭운송업자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트럭운송업도 ICC의 통제를 받게 되었는데, 실제 이유는 철도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시장에 대한 정부의 모든 간섭은 공익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지만, 사실상 그들은 공익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부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정부의 규제에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정부가 세운 기준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보라.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철두철미한 민간기업의 경쟁에 기인한 것이다.

[논제 I]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900자 이하: 배점 40점]

[논제 II] [라]~[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 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배점 60점]